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12.03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9	0.0	-9.1	-14.0	8.7	8.7	0.9	0.9	2.2	2.2	
통신업종	3.2	10.2	10.6	27.6	8.2	8.2	0.9	0.9	3.3	3.3	
SK텔레콤	1.9	12.4	10.3	30.4	6.7	7.2	1.1	1.0	3.5	3.6	
KT	1.0	5.9	5.5	13.0	10.9	10.4	0.6	0.6	3.5	3.7	
LG유플러스	9.9	9.6	12.7	48.7	13.6	12.6	1.2	1.2	2.4	2.7	
AT&T	6.4	2.4	-2.2	-3.8	8.9	8.7	1.3	1.2	6.4	6.5	
Verizon	2.8	6.5	10.9	26.1	12.9	12.8	4.6	3.8	4.0	4.1	
T-Mobile	2.1	-0.1	3.6	20.4	20.6	17.1	2.3	2.0	0.0	0.0	
Sprint	2.6	0.2	2.8	20.8	32.4	17.4	1.0	0.9	0.0	0.0	
NTT Docomo	1.2	3.7	-8.9	-5.3	13.4	13.3	1.7	1.6	3.8	4.2	
KDDI	2.2	10.5	-9.4	-8.8	11.3	10.3	1.7	1.6	3.4	3.8	
Softbank	8.4	9.5	-7.5	22.7	9.6	13.2	2.0	1.7	0.5	0.5	
China Mobile	2.3	4.9	5.2	10.1	12.3	12.2	1.4	1.3	4.0	4.0	
China Unicom	4.5	6.2	-0.7	-14.8	28.8	18.4	0.8	0.7	1.5	2.3	
China Telecom	3.4	11.4	14.1	13.5	15.0	14.0	0.9	0.9	2.8	3.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1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3%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12월 1일 동결 단말을 통해 최초의 5G 전파가 송출되며 본격적인 5G 시대 개막
KT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 등 보상 방침 결정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수, 외국인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매크로 환경 변동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
LG유플러스 외국인지분율은 주중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
한편,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통신 3사의 배당 매력도 부각
본격적인 5G 서비스가 개시되며, 향후 통신장비사들의 수주 시기 및 규모에 주목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5	26	27	28	29	30	1 5G 공식 상용화 선언
2	3	4	5	6	7	8

3 주간 뉴스

▶ 5G 새 시대 막 연 통신3사, 전파 스위치 켜다

(디지털데일리)

- 통신3사는 1일 0시에 5G 망 스위치 작동. 5G 전파는 전국 13개 시·군 주요 지역으로 송출
- 첫 5G 전파 고객은 각각 SKT는 안산의 명화공업, KT는 인공지능 로봇 로타, LG U+는 LS엠트론
- KT의 5G 요금제는 10GB기준 4만9,500원. 각 사는 주요 도시에서 시작해 커버리지 확장할 방침
- ⇒ 유명인 장관은 SKT의 인프라관리센터 방문하여 정부-민간 협동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강조
- ⇒ 내년 3월 예상되는 5G 모바일 단말 출시를 앞두고 5G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 KT, 1개월 요금감면 파격 보상에 나섰다

(ZDNet Korea)

- KT는 아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과 무선 가입자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방침
- 이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
- 이 외에도 카드 결제 등으로 난항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
- ⇒ 추가적으로 동계이불 기반 일반전화/인터넷 이용객에게 각각 6개월/3개월 요금 감면 결정
- ⇒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 화재 직후 2영업일 동안 KT 가입자 수 1,506명 감소

▶ '제4이통' 등록 가능해지나

(ZDNet Korea)

- 과기방통위는 27일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
-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분 폐지. 사업 규모 등 고려하여 규제 적용 범위 결정
- 자동차 등 비통신 사업자가 부가적 통신 기능이 포함된 상품 판매 시 승인을 면제하는 내용 포함
- ⇒ 해당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
- ⇒ IoT 산업에 긍정적 영향. 다만, 엄격한 주파수 할당 심사 고려 시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은 미미

▶ 국회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보류... "의견 수렴 부족"

(전자신문)

- 법안소위에서 과방위는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비하다며 보류 조치
- 과방위,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 국회는 공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 연내 결론이 힘을 전망
- ⇒ 법안 통과 및 시행에 걸리는 시간 감안시, 규제가 케이블TV인수에 걸림돌은 아닌 것으로 판단
- ⇒ 한편, 케이블TV 가입자 축소 및 IPTV 경쟁 심화가 지속되며 케이블TV인수 시도가 가열될 전망

▶ 뉴질랜드도 화웨이 장비 배제... 글로벌 장비전쟁 격화

(ZDNet Korea)

- 외신에 따르면 28일 뉴질랜드 정보통신보안국은 통신사 스파크의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
- 헐프턴 국장은 스파크의 5G 네트워크 계획에서 상당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확인했다는 입장
- 아프리카TV는 이를 통해 600만명의 가시청자구수를 추가로 확보. 향후 다양한 플랫폼 진입 계획
- ⇒ 한편, 22일 WSJ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도록 설득했다고 보도
- ⇒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독일과 영국 정부도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고려

▶ 아프리카TV 1인방송, KT 올레tv에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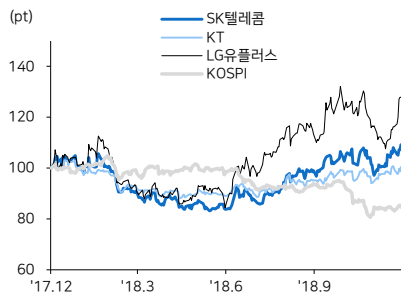
(디지털타임스)

- 아프리카TV는 'SBS아프리카티비'를 통해 KT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에 채널을 론칭할 계획
- 주요 콘텐츠는 스타크래프트, LOL, 배틀그라운드 등 e스포츠 리그와 닌시대회, 먹방, 연주회 등
- 아프리카TV는 이를 통해 600만명의 가시청자구수를 추가로 확보. 향후 다양한 플랫폼 진입 계획
- ⇒ 올레TV모바일에 아프리카TV 개인방송 전용 서비스 시작 이후 KT-아프리카TV 간 협력 강화
- ⇒ LG유플러스-넷플릭스, KT-아프리카TV 등 IPTV와 미디어 사업자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89,500	20.9	15.1	15.7	1.2	1.3	3.0	2.8	4.0	4.2	6.3	6.0	16.8	14.0
	KT	30,500	7.1	20.8	21.1	1.2	1.2	0.6	0.7	4.2	4.2	2.5	2.5	6.0	5.9
	LG유플러스	17,700	6.9	10.8	11.1	0.8	0.8	0.5	0.6	2.3	2.4	4.1	3.9	10.1	9.8
미국	AT&T	31.2	227.4	173.8	185.2	32.2	37.1	23.2	25.1	56.6	60.8	7.1	6.6	13.3	11.4
	Verizon	60.3	249.2	130.9	132.2	29.3	30.8	18.8	19.8	47.4	48.5	7.6	7.4	38.7	32.3
	T-Mobile	68.5	58.1	42.7	45.4	5.5	5.9	2.8	3.4	12.2	12.9	7.2	6.8	11.8	12.6
	Sprint	6.3	25.6	32.4	33.2	2.6	2.7	5.5	0.2	11.1	12.3	5.2	4.7	14.1	0.6
일본	NTT Docomo	2,629	87.5	44.2	42.7	9.1	8.8	6.7	6.1	13.9	13.5	6.2	6.0	12.6	12.4
	KDDI	2,664	59.4	45.8	45.4	9.0	9.0	5.3	5.4	14.1	14.0	5.2	5.1	15.6	15.7
	Softbank	9,526	92.3	83.8	83.5	11.5	12.1	9.7	6.9	25.1	24.9	9.4	9.2	20.9	10.9
중국	China Mobile	77.7	203.2	107.6	109.8	17.2	17.0	16.6	16.8	39.8	40.7	3.4	3.3	11.4	10.7
	China Unicom	9.1	35.5	41.2	43.4	1.3	2.2	1.2	1.9	12.5	13.3	2.9	2.8	2.7	4.2
	China Telecom	4.2	43.5	54.7	56.9	4.1	4.4	2.9	3.1	15.1	15.7	3.5	3.4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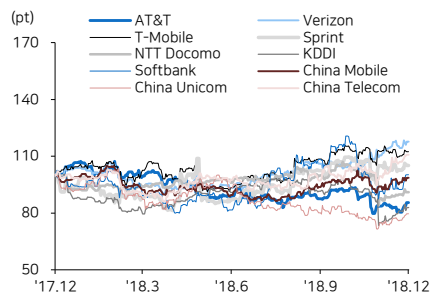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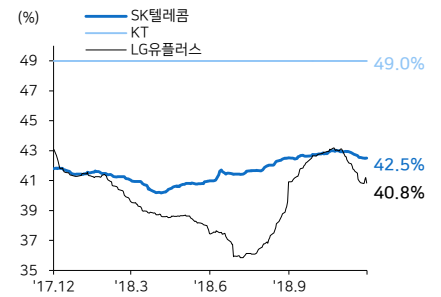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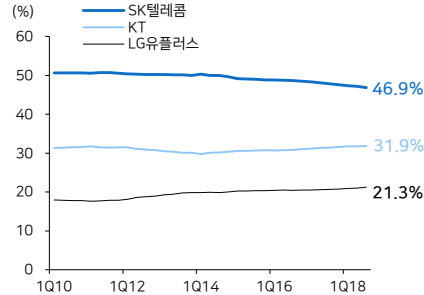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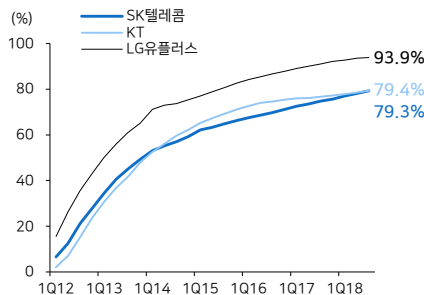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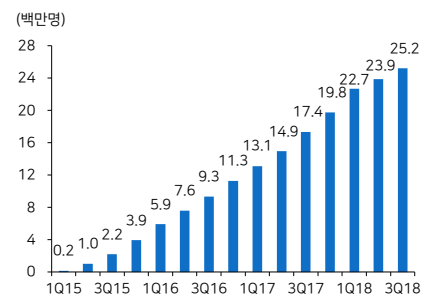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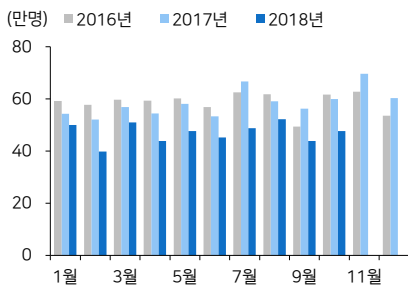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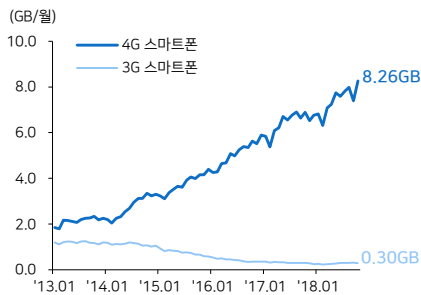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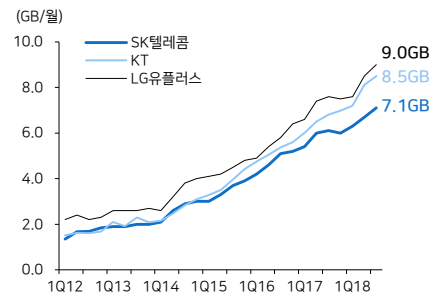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2월 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2월 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